

2017 년 7 월호 기쁨의 언덕으로 소그룹 교재

(김응선 목사, Oregon UMC, 오레곤, 일리노이)

7 월 첫 째 주 소그룹 모임: 마음의 가족을 베고

찬송

289 장(통 208 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546 장(통 399 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288 장(통 204 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여는 질문

예수를 믿기 전에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나 불편했던 점 혹은 존경스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 않아 마음의 가족이 남아서 일 것입니다.)

본문: 예레미야 4 장 1-10 절

돌아오라고 하시다

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2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와 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3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목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4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 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오다

- 5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 6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 7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 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 8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굶은 베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 9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 10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본문 이해

하나님은 유다 멸망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신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4 절 상)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 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4 절 하)고 경고를 보내고 계신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되돌아 봐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보고, 벗어났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9 절)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칼이 생명에 이르르게”(10 절)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축구선수 클로제는 개인 통산 월드컵 16 호골로 월드컵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그는 꾸준히 노력하는 선수이기도 하지만 정직한 선수로도 유명하다. 그는 2005년 4월 30일, 베르더 브레멘에서 활약할 당시, 아르미니아 빌레펠트에서 오심으로 얻은 페널티킥을 거절하였고, 그로 인해 페어플레이 상을 받기도 했다. 또 2012년 9월 말, 클로제는 라치오와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손으로 득점했고, 그는 이 사실을 주심에게 알렸고, 주심은 그의 득점을 취소시켰다. 클로제는 그 일로 인하여 축구가 거칠기만 한

운동이 아니라 명예로운 운동이기도 함을 증명했다. 그는 자신이 축구선수이지만 승리가 신앙의 양심을 우선할 수 없다고 말한다.

에베소서 4 장 25 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에 가족을 베고 살아가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자랑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자.

말씀 속으로

(1) 오늘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4 절) 라는 말씀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증한 행위를 버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사는 삶입니다. 1-2 절)

(2)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10 절)라는 말씀에서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6-9 절의 말씀에 나오는 멸망의 징조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삶 속으로

(1) 어떻게 우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4 절)는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은 알지만, 살려고 노력하다보니 삶의 현장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살기 위한 노력의 삶을 사는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칼이 생명에 이르지”(10 절) 않도록 오늘 우리가 “마음을 베고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되돌아 봐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보고, 벗어났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큰 시련을 겪은 적이 있다면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암송 구절: 예레미야 4:4 *(한 주간동안 암송 구절을 암기하신 후, 다음 모임에서 서로 확인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 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녀와 나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소그룹 나눔을 진행하시면서 나눌 수 있는 질문입니다.)*

- (1)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어려움이 생긴 적이 있니? 그럴 땐 어떻게 했니?
- (2)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17 년 7 월 호 기쁨의 언덕으로 소그룹 교재

(김응선 목사, Oregon UMC, 오레곤, 일리노이)

둘째 주 소그룹 모임: 여름이 다하였으나

찬송

505 장(통 268 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49 장 (통 249 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32 장(통 48 장) 만유의 주재

여는 질문

오늘 해야 할 일을 차일피일 미뤄서 고생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뒤로 미루는 일 가운데 가장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다. 그룹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 예레미야 8 장 13-22 절

죄와 벌

13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14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15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뿐이로다

16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17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선지자의 번뇌

18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19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20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21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22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 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본문 이해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삼은 유다의 멸망의 때가 다가 오고 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하지 않고, 우상과 이방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상황을 예레미야는 애타는 심정하고 염려하며 번뇌하는 내용이다.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시기를 농사의 시기와 비유를 하고 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13 절)와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20 절) 또 질병과 치유를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해서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뿐이로다”(15 절)와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 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문에서의 중동과 같은 사막 지역에서의 여름은 아무 것도 자랄 수 없고 건조한 죽음의 계절을 의미한다.

중동에서 추수는 4-6 월 사이에 밀을 추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추수철이 끝나면 건조하고 뜨거운 모래 바람이 부는 여름이다. 이 여름은 모든 것이 말라버리는 죽음과 황폐함을 상징하는 계절이다. 본문을 우리에게 맞게 각색한다면 중동에서 죽음의 계절인 여름은 우리에게서는 겨울이다.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께 속히 돌아가야 한다. ‘다음부터 잘해야지’ 하면서 현재의 일을 내일로 미루는 행동은 설산의 야명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인생의 여름이 가기 전에, 눈이 오고 추운 겨울이 와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 자꾸 미루어서는 안 된다!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면서 걸돌아서서는 안 된다!

일본의 여성 피겨 스케이팅 선수 아사다 마오 선수는 2005 년과 2008 년, 2012 년 그랑프리 파이널 우승자이고, 2008 년과 2010 년 세계 선수권 우승자였지만, 2010 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는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때 아사다 마오 선수가 이렇게 말했다. “길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끝나 버렸다.” 당신 인생의 여름이 가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심에, 초대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20 절)

말씀 속으로

(1) 본문에 나오는 중동에서 “포도, 무화과와 밀을 추수할 때, 그리고 여름”은 언제쯤인지 찾아 보십시오.

(2) 본문에서 여름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추수철이 끝나면 건조하고 뜨거운 모래 바람이 부는 여름이다. 이 여름은 모든 것이 말라버리는 죽음과 황폐함을 상징하는 계절입니다. 본문을 우리에게 맞게 각색한다면 중동에서 죽음의 계절인 여름은 우리에게서는 죽음의 계절인 겨울입니다.)

삶 속으로

(1) 당신 인생의 절정기에 당신이 했던 일은 무엇이고, 그 시간이 다시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각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서로의 경험과 느낌을 신앙과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2) 당신에게 인생의 겨울은 언제쯤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혹시 불신자가 있다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토론 합니다.)

암송 구절 예레미야 8:20 *(한 주간동안 암송 구절을 암기하신 후, 다음 모임에서 서로 확인합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자녀와 나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소그룹 나눔을 진행하시면서 나눌 수 있는 질문입니다.)*

(1) 학교에 가져 갈 과제를 미루어서 나중에 시간이 없어 쫓기고 제대로 과제를 완성하지 못한 적이 있니? 그때 들었던 생각이나 마음을 한 번 나눠 볼 수 있을까?

2017 년 7 월호 기쁨의 언덕으로 소그룹 교재

(김응선 목사, Oregon UMC, 오레곤, 일리노이)

7 월 세 째 주 소그룹 모임: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찬송

527 장(통 317 장) 어서 돌아오오

528 장(통 318 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387 장(통 440 장) 멀리 멀리 갔더니

여는 질문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 온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당신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교회를 떠난 경험이 있거나, 혹시 어려서 가출한 경험이 있다면 좋은 소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본문: 예레미야 14 장 19-22 절

백성이 주께 간구하다

19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 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20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21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22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본문 이해

혹독한 고난이 지나가면 이제는 평화를 기다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는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허황된 우상에게 절하고 영적인 간음을 범한 죄악의 결과는 참혹하기만 하다. 예레미아서 14 장 20 절을 보면,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한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마치 신약의 누가복음 15 장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눅 15:18) 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내용과 흡사하다. 회개(悔改)의 뜻은 뉘우칠 悔(회) 혹은 돌이킬 悔(회)로, 마음 心 어미 母 매양 매 每, 매일같이 들려주신 어머니의 마음으로 뉘우치고 돌이킨다는 뜻이다. 또 고칠 改자 고칠 改 자는 몸 己에 글월 文자다. 말씀을 자기에게 새기고 적용해서 고친다는 뜻이다. 다시 보면 어려서 마음으로 배운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마음을 고쳐먹고 말씀에 따라 되돌아가는 것이다. 즉,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회개할 때 신앙의 신비, 용서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난다. 러시아의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즈궁에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다. 그 그림을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다. 큰 아들은 심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두 손을 모으고 곁에 서 있다. 인상 깊은 모습은 용서를 비는 아들을 껴안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이다. 그 손 그림은 렘브란트가 죽기 바로 직전에 완성했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왼 손은 강인하고 남성적인 아버지의 손이요, 농부의 손으로 그려져 있다. 그런데 오른 손은 사뭇 다르다. 작고 부드러운 여성의 손이 그려져 있다. 헨리 나우엔은 두 손의 차이를 이렇게 말한다. “탕자의 아버지는 단순히 위대한 능력있는 아버지가 아니다. 그는 아버지 이상되는 어머니이기도 하다. 그는 아버지의 손으로 아들을 껴안았고 또 어머니의 손으로 품어준다. 아버지는 용기를 북돋우고, 어머니는 위로를 한다. 그는 하나님이다. 부성과 모성을 아버지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을 함께 가지신 하나님의 모습이다.”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자비를 베푸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말씀 속으로

(1) 20 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과 그들의 조상들의 악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그들의 죄악은 무엇인가?

(지난 주 성경 통독분을 검토하면서 그들의 죄악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없는지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2) 21 절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렘 33:14-22 과 시 89:19-34 를 참고하십시오.)

삶 속으로

(1) 혹시 여러분이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새로게 만들어 주심의 경험을 나눕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2) 당신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만난다면 뭐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체험을 나누는 일이 중요합니다.)

암송 구절: 예레미야 14:21 *(한 주간동안 암송 구절을 암기하신 후, 다음 모임에서 서로 확인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자녀와 나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소그룹 나눔을 진행하시면서 나눌 수 있는 질문입니다.)*

(1) 혹시 가출하고 싶은 생각을 가진 적이 있니?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2)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니?

2017 년 7 월호 기쁨의 언덕으로 소그룹 교재

(김응선 목사, Oregon UMC, 오레곤, 일리노이)

7 월 네 째 주 소그룹 모임: 노스페이스와 깨진 옹기

찬송

450 장(통 376 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428 장(통 488 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430 장(통 456 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는 질문

노스페이스에 대하여 아는대로 말해봅시다. 스위스 알프스 산의 융푸라우 봉의 아이거 북벽이든, 스포츠웨어 노스페이스이든 각자의 생각을 나눠 봅시다.

(인도자는 스포츠웨어인 노스페이스와 스위스 알프스 산의 융푸라우 봉의 아이거 북벽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미리 알아둔다.)

본문: 예레미야 19 장 10-15 절

깨진 옹기

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2 1)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3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4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 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 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 곳에 채웠음이며

- 5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 6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 곳을 도벳이나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 7 내가 이 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 8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 9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 10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응기를 깨뜨리고
- 11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 12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 13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 14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와 그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 15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말씀 속으로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상에 분향하고 섬김으로 인한 영적 타락의 결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깨진 응기(항아리)는 다른 아닌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진 곳, 생명보다 죽음이 왕성한 재앙이 덮친 유다의 상태다. 그 결과 유다의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악행을 버리지 않아, 그들의 땅이 더이상 "도벳이나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아니라

"살육의 골짜기"(6 절)가 되고,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9 절)는 비극이 선포되었다.

알프스의 융푸라우산에는 아이거 북벽이 있다. 영어로는 The North Face 이다. The North Face 는 한국사람에게 국민 체육복이라고 불릴만큼 흔한 스포츠웨어지만, 무려 64 명의 산악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1938 년 7 월에서야 정복 된 곳이다. 융플라우 봉은 이미 1811 년에 마이어 형제가 정상에 올랐던 곳이다. 왜 유독 북벽에서의 등반이 힘들었을까? 더 가파른 산들이 많고, 그런 산들을 잘 정복 하는데, 왜 알프스의 융푸라우산의 아이거 북벽 The North Face 만 예나 지금이나 등반이 어렵고 두렵게 여길까? 그 산의 북벽이 겨울에는 거의 햇빛이 비치지 않아서 눈이 오면 곧바로 얼어버리고 그 얼음이 녹지 않고 낮에도 음침할 정도로 살인적인 추위와 바람이 더욱 등반을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아이거 북벽은 죽음의 벽이다. 우리 삶에도 그 진리가 통한다. 그 삶에 햇빛이 비춰야 삶이 제대로 돌아간다.

성경은 그 북벽과 같은 삶을 깨진 옹기라고 표현한다. 그 북벽의 삶을 끝장낼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면 된다. 즉 God Face 다. God Face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비추는데, 스스로 자책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등지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북벽만 있을뿐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15 절)

말씀 속으로

(1)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에게 옹기를 깨뜨리라(10 절)고 하셨을까요?
(11 절-15 절까지를 함께 읽고 그 내용을 서로 확인하고 나눕니다.)

(2) 옹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1 절을 다시 함께 봉독하고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합니다.)

삶 속으로

(1) 당신의 삶이 깨진 옹기와 같은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다가 가장 힘들었던 적은 언제인지를 물어보고, 그 힘들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도록 격려합니다.)

(2) 깨진 옹기와 같은 당신의 삶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 오신 적이 있습니까?

(예배 중에, 혹은 성경을 읽다가, 깨진 옹기와 같은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눠 봅니다.)

(3) 깨진 옹기와 같은 북벽(North Face)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God Face)을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고난이 혹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서 생긴 고난은 아닌지 스스로 질문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나누도록 합니다.)

암송 구절: 예레미야 19:10 *(한 주간동안 암송 구절을 암기하신 후, 다음 모임에서 서로 확인합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자녀와 나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소그룹 나눔을 진행하시면서 나눌 수 있는 질문입니다.)*

(1) 요즈음 가장 힘든 일이 뭐니?

(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기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뭘까?

2017 년 7 월호 기쁨의 언덕으로 소그룹 교재

(김응선 목사, Oregon UMC, 오레곤, 일리노이)

7 월 다섯 째 주 소그룹 모임: 영적 자폐증(Spiritual Autism)

찬송

449 장(통 377 장) 예수 따라가며

455 장(통 507 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96 장(통 260 장) 새벽부터 우리

여는 질문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를 말해봅시다.

(여러분의 영적 모범이 되는 사람을 중에 특별히 언행이 일치되는 분들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본문: 예레미야 23 장 16-22 절

16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17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18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19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20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21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달음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22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본문 이해

왕들과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행하도록 인도하지 못함을 책망하고, 특별히 16-17 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거짓 예언자들을 책망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의 왕 메시아를 보내어 백성들을 구원할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깨닫고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능력을 상실했을까? 왜 능력이 없을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신학자 반하우스는 현대 교회가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신앙을 개탄한다. 또 그는 현대에 너무 자폐증 크리스찬(Autistic Christian)이 많음을 한탄한다. 자폐증이란 표현하지 않는 증세다. 반하우스 박사는 현대 교인은 설교를 잘 듣고, 성경공부를 잘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설교와 성경을 잘 이해했다고 반응도 하는데, 실천에서는 어색하다고 말한다. 아니, 실천 하려고 하지 않는단다. 그는 이것을 자폐증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다. 자폐증 크리스찬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민 교회의 문제 점 중에 하나는 신앙과 생활이 이분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영적 자폐증이 심하다는 말이다.

우리 사회의 위기는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정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천이 없어서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직면한 문제는 '정답의 위기'가 아닌 '실천의 위기'다. 믿음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롬 2:13) 오늘 성경에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는 이렇게 전한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렘 23:20)

말씀 속으로

(1) 16 절의 말씀에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16 절과 17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그 의미를 함께 찾아 봅니다. 최근에 자신이 듣고 가장 좋아했던 설교와 듣기를 꺼려하거나 두려워했던 설교는 없는지 꺼려하는 성경귀절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2) “여호와와 진노가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20 절)는 말씀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마음의 뜻하는 바”란 무엇인가요?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삶 속으로

(1) 당신이 크리스찬 자폐증의 증상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서로 나눕니다.)

(2)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크리스찬 자폐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로 행하느라 겪은 어려움이 있는지 혹은 반대로 말씀 그대로 행했더니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이 있는지도 묻습니까?)

암송 구절: 예레미야 23:20

“여호와와 진노가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자녀와 나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소그룹 나눔을 진행하시면서 나눌 수 있는 질문입니다.)*

(1) 부모님의 말씀이 옳지만 듣기 싫어하고 행하기 싫어 한 적이 있니?

(2)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니?